

▶ 내일 국립민속국악원 민속악축제 3번째 공연 '무, 그 깊이에 취하다'

# 깊이있는 민속 舞의 아름다움 속으로

(춤 무)

채상욱 · 이수자 명무 출연  
살풀이춤 · 달구벌 입춤 등  
전통춤 무대 위에 선보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제3회 대한민국 민속악축제의 3번째 공연으로 '무, 그 깊이에 취하다'를 선보인다.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국악원 예음헌·예원당 무대에는 채상욱(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윤미라(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사)대한무용학회 회장) 명무가 출연한다.

채상욱 명무는 작은 체구에서 뿔어져 나오는 강인함, 한순간에 관객을 집중시키는 연기성, 손끝까지 섬세하고 정교한 춤 모양새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는 이매방류의 '승무'와 '살풀이'를 제대로 출 줄 아는 몇 안 되는 무용가로 손꼽힌다.

채 명무는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한국 춤의 모든 기법이 집약돼 있는 승무와, 정중동의미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살풀이춤을 펼쳐 보인다.

윤미라 명무는 전통춤과 창작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현대화된 전통춤의 멋스러움을 선보



채상욱



윤미라

이고 있다. 달구벌 입춤(박지홍제 최희선류), 산조-저 꽃, 저 물빛, 영신금무-진쇠춤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문의 및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전화 063)620-2328로 하면 된다. 한편 민속악축제는 '악, 그 깊이에 노닐다' '가, 그 깊이에 스미다' '무, 그 깊이에

취하다' '희, 그 깊이에 빠지다'의 부제를 정하고, 민속공연예술 각 분야의 명인·명창·명무·연희단체 등을 초청해 공연과 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정해은 기자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참여작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작가 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한민국의 청년작가를 오는 19일~23일 공개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예술가로 시·문학·미디어·문화기획 등 장르구분 없이 개인 및 단체, 콜라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참여 작가에게는 '예술가의 방'과 '예술가의 작업실' 중 희망하는 형태의 거주공간과 소정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완주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이 한 달 동안 거주할 공간을 위해 지난 5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유희공간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완주의 10개 읍면에서 총 13곳의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숙식이 가능한 '예술가의 방'은 고산·구이·봉동·용진·운주 등 5개 읍면에 위치한 8곳이며, 창작활동이 중심이 될 '예술가의 작업실'은 경천·소양·삼례·화산면 등 5개 읍면에 위치해 있다.

각 읍면마다 한옥별채·단독주택·화가의 공유공간·마을회관 등 각기 다른 형태의 거주공간이 준비돼 있으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는 원하는 형태의 거주공간을 선택하면 된다.

참여 작가들의 본격적인 완주 한 달 살이는 7월~9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내일부터 '대한민국 1호 선자장' 김동식展

전통부채를 만드는 선자장으로 는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동식 선자장의 작품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부채문화관은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선자장 김동식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동식 선자장의 신작과 대표 작품 2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식 선자장은 부채 '등'에 주목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부채 등은 부채 손잡이 부분의 가장 끝부분으로 버선코 모양과 닮아 있다.

직사각형 네모난 나무 조각을 '짜구'라는 도구를 이용해 모양을 낸 후 수많은 손질을 통해 부채의 끝을 고운 선으로 만들어 낸다.

부채 등은 주로 우족이나 대추나무, 먹감나무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작품은 쉽게 볼 수 없는 붉은 색깔을 띠는 화목(火木), 연한 연두빛을 띠는 유창목(楡樟木), 연한 홍갈색을 띠는 주목(柞木) 등을 사용해 부채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자장은 이번 초대전에서 오십개의 살로 이루어져 백번이 접히는 오십살백(百)선, 선면에 황칠을 한 황칠선, 천연염료로 선면을 염색한 염색선, 선면에 비단을 붙인 비단선 등 다양한 부채를 선보인다.

또, 지난 2014년 개봉했던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에서 강동원이 칼을 든 하정우를 부채로 제압하는 명장면에서 사용했던 합죽선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초대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부채문화관(063-231-1774~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고려시대의 전주' 통해 전주 역사 체계화

오늘 전주역사박물관서 학술대회

전주역사박물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지하 1층)에서 '고려시대의 전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로 고려시대 많은 차별을 받았으나 고려 성종 2년(983) 12목 중 하나인 전주목이 설치돼 나주와 함께 전라권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고려시대 전주목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고대와 근세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전주의 역사를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동희 관장(전주역사박물관장)은 '고려시대 군현제와 전주'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는다. 전라감영과 관련해 고려시대 전라도를 순찰하는 안찰사영이 이미 전주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고려시대 전주지역 관성서와 세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하태규 교수(전북대)는 고려시대 전주 유씨·전주 최씨·전주 이씨 가문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세족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음을 밝힌다. '고려시대 전주 지역 불교계의 분포와 추이'를 발표하는 장일규 교수(동국대)는 고려시대 전주지역 불교에 대한 논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연구를 주문하고 있다.

송화섭 교수(전주대)는 '사료를 통해서 본 고려시대 전주의 성향신앙'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고려시대 성향신앙은 전주 부 향리들이 제물을 마련하는게 전통적인 관례였으며, 전주 성향신의 위계와 신분이 대단히 높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법종 교수(우석대)는 '이규보의 기록을 통해 본 고려시기 전주, 전라북도'를 논하며, 최근 전라감영에서 출토된 전주목(全州木) 명문과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한문중(전북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서영대(인하대학교 교수), 한정훈(목포대학교 교수), 김방룡(충남대학교 교수), 유호석(전북대학교 한국학센터 연구원), 허인욱(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해은 기자



심아식당



엘르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6월 둘째 주 개봉작

'맛있는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 -심아식당-

'자신만의 방식으로 괴한 추적' -엘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6월 둘째 주 개봉작으로 관객실문 조사 결과 반영작 '심아식당'과 '엘르'를 개봉·상영한다.

2015년 6월 상영된 '심아식당'의 후속작품인 '심아식당 2'는 늦은 밤 불을 밝히려 맛있는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일본에서만 240만 부 판매기록을 세운

동명의 아시아 베스트셀러 만화가 원작으로 TV드라마에 이어 영화까지 연출까지 성공적으로 해낸 마츠오카 조지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 '엘르'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인 미셀이 어느 날 괴한의 습격을 받은 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그린 심리 스릴러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참조. /정해은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